

“중남미와 친환경·디지털 협력 확대”

문 대통령, 한·SICA 정상회의서 “협력사절단 순차 파견”... SICA “혁신적 나라와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9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4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해 친환경·디지털 전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중남미 역내 첫 다자 정상회의로, 2010년 제3차 한·SICA 정상회의 이래 11년 만에 개최됐다.

SICA는 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벨리즈 등 중미 8개국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1991년 발족한 역내 기구다.

미주지역의 교역·물류의 중심지로 불리는 지역으로, 최근 코로나19 이후 대미 생산기지를 안착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에 수혜를 입는 곳으로도 꼽히며 유망 상품 시장으로 부상 중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8개 회원국과 옵서버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역외 옵서버에 가입했다.

이번 회의는 ▲기술 이전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그린·포용적 경제 회복 ▲지역 협력을 의제로 진행했다. 개최사와 SICA 정상별 모두발언 및 의제별, SICA 정상발언과 공동선언문 채택,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한·SICA 회원국 간 제도적 협력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라며 농업, 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 협력사절단을 순차적으로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시적 협력기구인 한·SICA 협력센터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SICA 협력기금을 재조성해 자연재해, 보건으로, S·T·R·O·B 등 당면과제 극복에 함께하는 동시에 SICA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해 국제 보건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을 언급하며 SICA와의 기후 변화 대응 협력 확대 의지도 발표했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SICA는 한국의 혁신을 배워야 하며,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협력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브리세노 벨리즈 총리는 혁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전자정부 이니셔티브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자메이카 과테말라 대통령은 한국과 과테말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중미 FTA 5개국에 이어 과테말라도 FTA를 맺기를 원한다”고 했다.

우유아 엘살바도르 부통령은 “한국의 신탁기금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마데로 온두라스 총괄국무조정장관은 “온두라스가 작년에 두 번의 허리케인을 겪었을 때 한국은 주요 협력국으로 큰 도움을 주었고, K-방역 경험을 전수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코르티스 파나마 대통령과 아비네르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솔로르사

노 니카라과 통상장관은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폐회사에서 한·SICA 양측 간 의교체널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후포스 프데모스!”(함께하면 할 수 있다, Juntos podemos)로 인사를 마쳤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외교 의안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한편, SICA 회원국들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중미 시장에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올해 상반기 중남미 지역 인프라 분야 약 50억달러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SICA 지역에서 친환경·디지털 분야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SICA 개발 협력 지원 등을 논의했다”며 “한·미 공조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도와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는 전북보훈회관 강당에서 6·25전쟁 제71주년 행사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영웅들의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

전북도, 6·25전쟁 제71주년 행사

전북도와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는 전북보훈회관 강당에서 6·25전쟁 제71주년 행사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6·25참전 영웅들의 용기와 희생에 대한 감사와 보은, 전후 세대에 국가의 소중함과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 이윤심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이재운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장, 전북보훈처장, 6·25참전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기념사, 6·25노래, 안보결의문 낭독, 6·25전쟁 동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도와 6·25참전유공자 전

북지부는 14개 시·군에 홍보 현수막 80개를 게시, 6·25전쟁의 교훈을 도민들과 함께 상기하며,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과 안보 의식을 고취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체 소외되기 쉬운 고령의 6·25참전영웅 200여명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담은 방역키트도 전달할 예정이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를 위하여 청춘을 바친 6·25참전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말만 삼아 사랑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문명’과 미래 신산업을 키우는 한편,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지난 한해동안 전북으로 1만6390가구 귀농귀촌

전북도는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 통계에서 전북의 귀농귀촌은 1만6390가구로 전년에 비해 1,598가구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대비 귀농귀촌 전북 증가율은 10.8%로 전국 증가율 8.7%를 상회했으며, 귀농은 14.3%(전국 9.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귀농은 1,508가구로 전남, 경북에 이어 전국 3위를 달성했으며, 2017년부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농촌 유지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년도에 고창군이 5위를 차지한 시·군 단위에서는 임실군이 전국 5위를 차지, 상위 5개 지역에 포함됐다.

귀농 통계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도 자체사업으로 ‘체제형가족실업농장 조성’,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등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귀촌은 타 시도에 비해 광역도시가 없어 여건이 불리한 상황으로 전국 8위의 하위권 수준이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문화예술인 생활마을 살아보기’ 등 귀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귀촌인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귀촌인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 가입 후 희망 시·군 및 관심 분야 등을 등록하며, 해당 시·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와 위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3개 지자체(군산, 김제, 부안)는 지난 25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배분기준을 확정하고, 새만금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금속가공 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찾아

우범기 정무부지사, 전주 금속가공 소공인들과 만남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소공인들과의 소통행정에 나섰다.

전북도는 도와 전주, 전주 금속가공 소공인협회, 전주 금속가공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위축된 금속가공 소공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소공인의 경기회복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도심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인 ‘소공인’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관계자로, 이중 전주시 금속가공 소공인 협회는 약 140여 개로 팔복동과 여의동에 분포하고 있다.

이 중 57개 사가 지난 2016년 전주 금속가공 소공인협회를 구성, 해외



전북도는 도와 전주시 전주 금속가공 소공인협회, 전주 금속가공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바이어 발굴과 비즈니스 공유, 소공인 신제품 개발 연구, 판로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전주 금속가공 소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대표들은 노동환경의 특성으로 인한 근로자 채용과 주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대한 애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주

시, 도 관련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우범기 도 정무부지사는 “소공인의 근무환경 개선과 경영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 소공인들의 경제활동과 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소공인 협업으로 ‘미니리 세척기’ 제품을 출시해 크게 히트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연구원, 올 전북학 우수학위논문 지원자 공모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 전북학연구센터는 전북학 관련 2021년도 우수학위논문 지원사업의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다.

전북학 연구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전북 지역의 기초 연구력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모집하며, 선정된 신진연구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상한다.

모집 대상은 전북도 혹은 관내 시·군의 인문·사회·경제·자연 등의 주제로, 도내·외 대학교에서 2021년 2월~2021년 8월 내에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해 졸업 혹은 졸업예정인 신진 연구자이다. 응모자는 지원 학위논문에 관한 재판 서류를 제출하며, 이를 분야 전문가가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및 문의는 전화(063-280-7167) 혹은 이메일(kuk0@jthink.kr)을 통해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도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신뢰성 보장”

홍성임 도의원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민생당 비례대표)이 최근 “도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전문성 및 신뢰성 보장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홍성임 의원은 “전북도가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성임 의원은 도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개선방안으로 외부전문가 선임, 전문교육 강화, 외부전문가에게 위탁 고충을 제안했다.

한편, “전북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은 고충상담창구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선임 및 외부전문기관 위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성 관련 범죄는 갈수록 세분화, 중범죄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응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범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익산 유소년축구장 확충 성공 가능성’

최영규 도의원, 금마축구공원 3구장 신설 간담회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익산 4)이 익산시 금마축구공원 내 3구장 신설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최근 주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북도와 익산시 체육정책 부서, 도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의실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기관 참석자들은 금마축구공원을 축구종목에 특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금마축구공원 내 3구장 신설시 유소년축구장으로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익산시는 금마축구공원 내 세 번째 축구경기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도 교육청은 유소년스포츠 클럽 축구 경기장을 추가로 물색하고 있다.

한편, 현재 추진중인 3구장 신설을 유소년 축구장 병행 활용이 가능한 방안으로 하게 되면 익산시 입장에서는 금마축



구공원 내 경기장을 3면으로 확충해서 집적화 효과를 이끌어내고, 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족한 학교스포츠 클럽 축구장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간담회에서 익산시는 “전북도에 관련 예산편성을 요청했으나 우선순위에 밀리고 말았는데, 도에서 긍정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신다면 익산 스포츠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의 적극적인 투자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최영규 의원은 전북도의 지원당위성을 역설하며, 도의 입장을 요구했고, 참석자도 관계자도 추가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최영규 의원은 “유소년축구장 병행 활용을 전제로한 교육청의 공동투자는 체육인프라 활용도를 배가시키는 동시에 익산시 재정부담 경감효과도 있다”면서 “학생선수들이 사용하는 시간과 성인 생활체육인이 사용하는 시간에도 겹치지 않으므로, 익산시와 도교육청의 공동투자와 전북도의 지원이 더해지는 방안은 행정거버넌스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인권담당관 조사·상담 전문인력 확충을”

김이재 도의원 주장 제기

도내 유일한 인권담당기구인 전북도 인권담당관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사·상담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이재(더불어민주당, 전주4)의원은 “최근 도내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권리구제를 위한 요구도 그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사와 상담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인력의 추가적인 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인권침해·차별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보호



와 함께 신속한 권리구제이다”며 “실제로 신청인들도 시급한 조사 요청과 즉각적인 인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이재 의원은 “하지만 신청사건의 경우 기본적인 상담에서부터 최종 결정 통보까지 많은 절차와 상당 기간이 소요(평균 129일)된다”며 “일련의 모든 절차는 사건의 연속성, 비밀보장, 전문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상담에서 결정 통보까지 인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 사안이 접수되거나 이미 신청이 제기될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